

모성애 연기로 시청자 울리는 김태희 변호사 뒤통수 치는 능청연기 김혜수

tvN '하이바이, 마마!'·SBS '하이에나' 출연

4~5년 만에 돌아온 안방극장

성숙해진 연기로 시청자 눈길 잡아

5년 만에 돌아온 김태희는 반가웠고, 그의 엄마 연기는 시청자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께 방송된 tvN 새 주말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1회 시청률은 5.9% (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에 인형 같은 예쁜 외모로 대한민국 대표 미녀로 꼽히는 김태희지만, 그는 작품을 할 때마다 유독 연기력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작품을 쉬는 5년 동안 결혼과 두 아이 출산을 경험하고 온 김태희의 모성 연기는 1회부터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태희가 제작발표회에서 "딸을 가진 엄마라는 것도 그렇고, 평소 제 모습과 가까운 캐릭터"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연기는 지금에서야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딸아이를 위해 그의 결을 떠나기로 결심한 절절한 모습을 표현하는 연기에서 특히 좋은 반응을 낳았다.

'하이바이, 마마!'는 사고로 가족 결을 떠나게 된 차유리(김태희 분)가 재혼한 남편과 딸아이 앞에 귀신으로 다시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 장르로 풀어낸 휴먼 드라마다.

지난해 이승재 저승 세계를 그려낸 '호텔 텔루나'로 좋은 성적을 거둔 tvN이 비슷한 소재 드라마로 다시 한번 웃을지 주목된다.

한편, SBS TV 새 금토극 '하이에나'가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로 막을 올렸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까지 방송한 '하이에나' 1회 시청률은 7.7%~10.3%로 집계됐다.

'하이에나'는 2016년 '시그널'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혜수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대세'로 떠오른 주지훈, 장태우 PD의 복귀작이라 방송 전



김태희



김혜수

부터 화제를 모았다.

'뿌리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 등 히트작을 여럿 연출한 장태우 PD는 중국에 진출했다가 6년 만에 SBS로 돌아왔다.

드라마는 1회에서 김혜수의 상반된 2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시선을 붙잡았다. 김혜수가 연기한 정금자 캐릭터는 금수저 변호사 윤훈재(주지훈 분)를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통쾌함을 안겼다.

돈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금자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윤훈재가 부딪히며 생성해 낼 '케미' (궁합)가 앞으로 극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에나' 보다 1시간 늦게 방송한 JTBC 금토극 '이태원 클라쓰'는 12.28% (유료 가구)로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⑥ | 00 KBS 뉴스 광장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⑦ | 50 인간극장 |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니쁜사랑 |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
| ⑧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35 맛 좀 보실래요 |
| ⑨ | 30 KBS 뉴스 |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 30 930 MBC 뉴스 55 국회의원 선거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 10 좋은아침 |
| ⑩ | 00 총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제2차 | 40 지구촌 뉴스 |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 |
| ⑪ | | 00 KBS 뉴스특보 <코로나19> 30 살림하는 남자들(재) | 00 꾸러기 팀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 ⑫ | 00 KBS 뉴스 12 | 40 제보자들(재) |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 00 SBS 12뉴스 25 미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
| ⑬ |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 55 닥터 365 |
| ⑭ |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 | 00 뉴스브리핑 |
| ⑮ | 00 남북의 정(재) 40 국회 비교설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 30 TV 유치원 | | |
| ⑯ | 00 사사건건 |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 0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스페셜 |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
| ⑰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
| ⑱ | 00 6시 내고향 |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 25 오매! 전라도 |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
| ⑲ |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 50 우아한 모녀 | 30 MBC 뉴스데스크 |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
| ⑳ | 30 꽃길만 걸어요 | 30 글로벌24 55 육체방의 문제아들 | 55 시사매거진 2580 특별판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
| ㉑ | 00 KBS 뉴스 9 | 10 개는 출렁하다 | 45 배철수 챔 | 40 낭만닥터 김사부 2 |
| ㉒ | 00 가요무대 | | 55 언니네 쌀롱 |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
| ㉓ |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 40 씨름의 히열 -태극장사 결정전 | |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문록 스페셜 |
| ㉔ | 35 KBS 뉴스특보-코로나19 55 디큐 인사이트(재) |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5 UHD 특선 디큐 기묘한 생물들 | | |

EBS1

| | | | | | |
|-------|------------------|-------|-------------------|--------------------------|-----------------------------------|
| 07:00 | 로보카 폴리 | 12:00 | EBS 정오뉴스 | 17:30 | 애코와 친구들(재) |
| 07:15 | 용감한 소방차 레이 | 12:10 | 다문화 고부 열전 | 17:45 | 마사와 곰(재) |
| 07:30 | 뽀통뽀통 뽀로로 | 13:00 | EBS 디큐프리임 | 18:00 |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 |
| 07:45 | 페파 피그 | 13:55 | 별일 없이 산다 | 19:00 | 스피디어맨 |
| 08:00 | 딩동댕 유치원 | 14:45 | 물랑 | 19:30 | 레전드하이어로 삼국전 |
| 08:30 | 애코와 친구들 | 14:55 |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 20:00 | 머밀도사 |
| 08:45 | 최고다! 호기심딱지 | 15:10 | 로보카 폴리(재) | 20:30 | 아옹 Państ경 귀여워2(재) |
| 09:00 | 엄마 까투리 | 15:25 | 제로니모스 틸턴의 모험 | 20:50 | 세계테마기행 1~2부 <남미지질기행-사막 호수의 비밀> |
| 09:30 | 원더볼즈 | 15:55 | 엄마 까투리(재) | 21:30 | 한국기행 |
| 09:40 | 아옹 Państ경 귀여워2 | 16:10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 <봄, 봄이 오면 1부 바다 너머 봄 마중> | |
| 10:00 |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 16:25 | 페파 피그(재) | 21:50 | EBS 디큐프리임 |
| 10:30 | 한국기행(재) | 16:40 |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 22:45 | 다문화 고부 열전 |
| 10:50 | 최고의 요리비결 | 17:00 | EBS 뉴스 | 23:35 | 별일 없이 산다 |
| 11:20 | 세계테마기행(재) | 17:20 | 그림을 그려요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4일(음 2월 1일 丁酉)

☎ 010-9790-8237

| | | | | |
|------|--|----------------|------|---|
| 36년생 |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48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60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죄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72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느니라. 84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남이 예상된다. 96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 행운의 숫자: 43, 67 | 42년생 | 식상함에 고통에서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느니라. 54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느니라. 66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78년생 길로로 연결되며 발전된 양상을 막는다. 90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02년생 전화의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행운의 숫자: 19, 80 |
| 37년생 | 지나치다면 아니면만 못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9년생 갑자기 서두른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61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73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라. 85년생 적절하니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 행운의 숫자: 82, 83 | 31년생 | 가볍게 통과 되겠다. 43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맞다. 55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자. 67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79년 생 날 익은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91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
| 38년생 |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50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느니라. 62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74년생 전제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참으로 난감 하리라. 98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엊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행운의 숫자: 82, 87 | 32년생 | 뻔히 알면서도 우려하였던 형편에 이르게 할 필요는 없다. 44년생 선택을 잘 하자. 56년생 연세적이다. 68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80년생 달갑지 않은 것으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
| 39년생 | 경기망동 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뿐인 것일 것이다. 51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63년생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75년생 확신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87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99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 행운의 숫자: 39, 52 | 33년생 |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45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 57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9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93년생 겸정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 |
| 40년생 |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해야 해만 한다. 52년생 양호한 구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64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76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88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00년생 소상하게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 행운의 숫자: 42, 61 | 41년생 | 정식화된 문제를 맞추는 형상이다. 46년생 작성하여 왔던 바대로 모색하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58년생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겠다. 70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이 보인다. 82년생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따라서 원정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94년생 액면 그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33, 91 |
| 41년생 |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53년생 분류를 잘 해둔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한다. 65년생 현실의 역경에 순응 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늘어난다. 77년생 없음으로 인해 차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89년생 다층적인 노력은 경주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01년생 세부적으로 임해야만 무탈 하리라. | 행운의 숫자: 49, 53 | 35년생 |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7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